

강남 찜오라는 자기정의부터

강남 찜오는 강남을 삶의 무대 삼아 일하지만, 강남의 모든 비용과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자원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을 뜻한다. 회사는 테헤란로에 있고 명함은 반듯하지만, 월세는 2호선 다섯 정거장 밖, 점심값은 애매하게 비싸고 술값은 가파르게 오른 세상에서 균형을 찾는 부류다. 하루를 버티는 감각, 비용을 다루는 현실감, 커리어를 지키는 판단이 어긋나면 금세 체력과 통장이 동시에 바닥난다. 강남 찜오는 결국 선택과 포기, 타이밍의 직조다.

나는 광고와 IT 사이 경계를 드나들며 10여 년을 강남권에서 보냈다. 8시 반에 2호선을 탈 때와 9시 10분에 탈 때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점심을 11시 40분에 먹으면 어떤 가게는 대기 없이 앉을 수 있는지, 저녁 9시 이후에만 할인하는 필라테스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체감으로 안다. 여기 적는 것들은 그 세월이 만든, 과하게 반짝이지 않는 생존법이다.

출퇴근과 동선의 설계

강남에서 출퇴근의 질은 시간대와 환승 선택으로 결정된다. 지하철 2호선은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그리고 18시부터 19시 20분 사이가 최악이다. 이 구간을 살짝 비껴나면, 하루 체력의 절반을 아낀다. 예를 들어 8시 10분에만 지하철을 타는 리듬을 세우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20분 정리 시간을 갖는 루틴을 만들면 출근길이 업무 전 준비 시간으로 바뀐다. 반대로 9시 정각에 맞춘 탑승은 몸싸움과 한숨으로 시작해 오전 집중을 잠식한다.

신분당선은 요금이 비싸지만, 실제로는 환승 한 번을 줄여서 체감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분당이나 판교에서 오간다면 10분 절약으로 얻는 이익이 누적되어 한 달 200분, 대략 3시간 이상의 회복 시간을 만든다. 반면 9호선 급행은 혼잡도와 탑승 동선이 변수다. 여의도에서 강남역까지는 빠르지만, 강남역 내부 동선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출구 전략을 미리 정해야 한다.

버스와 도보 조합은 흔히 무시되지만,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에는 최적해다. 강남대로 버스는 정류장 간격이 짧고, 버스전용차로를 타면 퇴근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사거리 하나를 걸어 옆 정류장에서 급행을 타는 편이 두 번 환승하는 지하철보다 낫다. 여기에 공유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5분만 엮어도, 출퇴근 체력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다만 비 오는 날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한다. 비 예보가 있는 주에는 우산보다 발수 점퍼와 여벌 양말이 실제로 더 유용했다.

점심 전쟁의 경제학

강남에서 점심을 매일 외식하면 9천원에서 1만4천원이 자연스럽게 지출된다. 메뉴가 고기나 생선이면 1만2천원 이상, 샐러드와 그릭요거트 조합도 1만1천원대가 기본이다. 여기에 커피까지 붙이면 하루 점심 비용이 [역삼점오](#) 1만6천원을 넘기기 쉽다. 한 달 20일을 그렇게 보내면 32만원이다. 월세가 80만원인 사람이 점심과 커피에 30만원을 태우면, 체감 소득이 줄어진다.

점심을 싸게만 먹으려 들면 팀과의 관계가 삐걱거린다. 대신 리듬을 정하는 방식이 낫다. 주 2회는 동료와 정상 식사, 주 2회는 사내 카페테리아나 사내물 간편식, 주 1회는 혼밥으로 근처 백반집. 이렇게 섞으면 비용을 20에서 30퍼센트 낮추면서도 관계와 건강 사이의 균형이 맞는다. 또, 대기가 길어지는 시간대를 피하려면 11시 40분 이전 혹은 12시 50분 이후로 나눠서 움직인다. 12시 10분부터 12시 40분 사이에는 회의 알림과 줄이 겹친다. 미리 나가는 날을 정해 놓으면 동료도 흐름을 이해한다.

주문 배달은 점심 급행로가 아니다. 점심 피크에는 배달 대기가 늘고, 음식은 미지근해진다. 배달앱 쿠폰을 모아 두었다가 야근이나 주말 작업날에 쓰는 편이 효율적이다. 사무실 근처 편의점의 도시락은 종류 편차가 크므로, 본인이 만족하는 제품 2종을 정해두고 돌려 먹는 식이 질리지 않는다. 마감 할인은 18시 이후가 일반적이지만, 인기 제품은 17시 30분 이전에 동나기도 한다. 협업이 잦은 날에는 카페인을 점심 직후에 몰아 마시기보다 15시 전후에 쪼개 마시는 편이 집중 유지에 유리하다.

주거의 타협과 계산

강남에서 살지 않으면서 강남을 쓰려면, 반경 30분 원을 그린다. 지하철 한 번에 진입 가능한 곳이 출퇴근 피로를 줄인다. 오피스텔 원룸 월세는 보증금 1천만에서 2천만원 기준으로 80만에서 120만원 범위에 걸린다. 신축에 가까울수록 100만원을 가볍게 넘긴다. 반반년 단위의 코리빙은 공과금과 청소가 포함되어 편하지만, 소음과 사생활이 변수다. 대신 이사와 해지가 수월하고, 가전 구매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지하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은 월세가 50만에서 70만원대지만, 겨울 보일러와 여름 습기가 비용 외 스트레스를 만든다. 일한 다음에 집이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작업실도, 창고도 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준다. 내 기준에서, 전세 대출을 끼더라도 해가 드는 중층, 샤워 수압이 안정적인 집, 소음이 덜한 골목을 우선했다. 강남 쪽오에게 집은 체력의 배터리다. 출근길 10분을 아끼느라 집의 기본 구조를 희생하면, 1년 뒤 복리의 차이가 벌어진다.

주거 위치는 동선의 연결성으로 다시 걸러야 한다. 신논현과 강남역 사이, 역삼역 3번출구 인근처럼 메인 축과 골목 상권이 접한 곳은 생활 편의가 압도적이지만 시끄럽다. 반대로 도곡, 양재천 라인은 쾌적하지만 밤 10시 이후 이동이 번거롭다. 금요일 저녁 회식이 잦다면 귀가 동선까지 시뮬레이션하라. 택시 잡기가 어려운 지역과 시간대를 메모해 두면, 굳이 비 오는 날 30분을 서 있지 않는다. 비용과 체력의 총합이 이익이어야 한다.

인간관계, 회식, 에너지 관리

강남의 회식은 휩쓸리기 쉽다. 제안이 넘치고, 장소가 가깝고, 유혹이 많다. 그런데 1차는 업무, 2차는 관계, 3차는 체력의 싸움이다. 1차에서 업무의 마무리와 논의를 끝내고, 2차는 선택지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내가 정한 기준은 간단했다. 평일 2차는 월 2회, 금요일이라도 3차는 안 간다. 이 기준을 정중하게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받아들인다. 기준의 존재는 내가 스스로를 관리한다는 신뢰로도 읽힌다.

네트워킹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내 업과 맞지 않는 모임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커뮤니티는 두 개면 충분하다. 하나는 실무 커뮤니티, 다른 하나는 관심사 확장용. 실무 커뮤니티에서는 발표를 한 번 해보는 편이 낫다. 발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커리어 내공이 된다. 관심사 모임은 러닝, 사진, 책 등 무엇이든 된다. 업무와 무관한 성취가 번아웃을 막는다. 강남 한복판에서 일하더라도, 삶의 무게중심을 회사에만 두면 의존도가 높아진다.

체력과 정신 건강의 루틴

강남에서 운동은 동선에 붙여야 지속된다. 회사 바로 옆 헬스장을 선택하고, 45분 프로그램으로 끝낸다. 점심 전후 30에서 40분 웨이트를 주 3회만 해도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이 줄고, 오후 집중력이 늘어난다. 필라테스와 요가는 20시 이후 수업이 비교적 비어 있고, 저녁 시간대 할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등록비는 월 12만원에서 25만원 범위. 선택 시 강사가 바뀌는 빈도를 확인하라. 강사 교체가 잦은 곳은 루틴 깨짐의 가능성이 높다.

정신 건강은 병원 접근성만으로도 반쯤 해결된다. 역삼, 선릉 라인에 상담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가 여럿 있다. 예약 대기는 보통 1주에서 3주. 초기에는 2주 간격으로 3회만 꾸준히 가도, 수면 위생과 스트레스 인지 기술을 체득할 수 있다. 약물 복용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전문의와 상의하면 된다. 중요한 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상담을 생활 영역으로 가져오는 태도다.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늦게 인지한다. 내가 지친다는 신호는 아침에 알람을 3번 넘기고도 몸이 무거울 때, 집중 시간이 20분을 넘기지 못할 때, 대화에서 미세한 짜증이 올라올 때다.

돈 관리, 강남 프리미엄의 정면 돌파

강남의 가격대는 사람을 둔감하게 만든다. 커피가 6천원, 파스타가 1만8천원이어도 그러려니 하게 된다. 둔감해지면 통장은 얇아진다. 해결책은 카테고리별 상한선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식 상한 월 28만원, 카페 월 10만원, 교통 월 7만원, 자기계발 월 15만원. 상한선을 정하고, 처음 두 달만 꼼꼼히 기록한다. 이후에는 범주별 잔액만 주간 단위로 확인한다. 앱 가계부는 시작을 돕지만, 결국 계속 쓰는 건 간단한 룰이다.

연말정산과 세액공제는 강남 쪽오에게 확실한 캐시백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차이, 교통비 자동 이체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형 IRP와 ISA는 세제 혜택이 크지만, 수수료와 상품 구성이 천차만별이다. IRP는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분기 단위로 리밸런싱만 확인하면 된다. 월 30만원씩 적립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5년 뒤 차이는, 경험상 체감 안정감부터 다르다. 비상금은 3개월

치 생활비를 별도 통장으로. 나는 비상금 통장을 다른 은행에 두고, 주거래 앱에서 바로 보이지 않게 숨겨 놓는다. 꺼내 쓰기 어려워야 비상금이다.

커리어, 프로젝트 선택의 지능

강남에서는 일감이 많다. 많다는 건 함정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승진이나 이직을 생각한다면, 포트폴리오에서 타인의 이해를 돕는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쌓아야 한다. 매출 기여가 명확하거나, 리드한 범위가 뚜렷하고, 확장성이 보이는 과제. 반대로 아무리 멋져 보여도, 본질이 이벤트 운영이나 단발성 성과에 매여 있는 과제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랜다.

프로젝트를 말할 때 나는 세 가지를 묻는다. 첫째, 내가 빠지면 이 일은 멈추는가. 둘째, 성과가 숫자로 박히는가. 셋째, 6개월 뒤에 설명 가능한가. 세 질문 중 두 개 이상이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커리어일수록 잡무를 회피하지 못하지만, 잡무를 포장하는 언어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 운영을 맡았다면, 마감률과 오류율이라는 숫자를 꿰고, 프로세스를 개선한 전과를 남긴다. 직함보다 문서가 오래 간다. 한 장짜리 포스트모템 문서라도 남기면, 다음 이직 면접에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다.

회의, 메일, 문서의 미세 습관

강남의 속도는 회의 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회의가 많은 팀은 대부분 정리와 의사결정이 약하다. 회의를 반으로 줄이고 메모를 두 배로 늘리는 편이 효율적이다. 회의 초대장은 문제 정의, 원하는 산출물, 결정권자 표시, 시간을 포함해 4줄이면 충분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10분 내로 요약 메일을 보내는 습관을 들인다. 10분을 아끼려다 1주일을 잃는다. 문서 제목은 날짜 - 주제 - 버전으로 통일한다. 검색이 편해야 팀이 움직인다.

슬랙이나 메신저 알림을 끄는 시간대를 하루 2번 만든다.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오후 3시에서 4시 30분처럼 집중 블록을 만들어 두면 산출물이 나온다. 팀에 미리 공지하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물로 설득된다.

부수입, 공부, 그리고 리스크

강남 찜오에게 부수입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회사의 검직 규정, 이해상충, 영업비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규정 위반은 한 번의 신고로 커리어가 꺾인다. 가능한 옵션은 강의, 글쓰기, 데이터 정리 같은 비민감 영역이다. 강의는 준비 시간이 과하게 든다. 한 번에 끝나는 강연보다, 4주 과정의 반복 가능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노동 대비 수익이 난다. 글쓰기는 플랫폼 수익만 기대하면 박하다. B2B 리포트나 뉴스레터로 전환해, 특정 업계의 의사결정자에게 판매하는 모델이 낫다. 비용 청구와 세무 처리는 간이과세 기준을 확인하라. 현금흐름이 예측 가능해야 본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계발은 목표 없이 과소비되기 쉽다. 자격증은 명함에 쓸 것이 아니라, 일을 밀어붙이는 레버로 삼아야 한다. 데이터 툴을 배울 때도, 실무의 구체 과제를 가져와서 튜토리얼에 얹는다. 실무에 물리지 않는 공부는, 결국 기억에서 탈락한다.

기록과 자동화, 사수가 없어도 버티는 법

사수가 친절하지 않은 팀은 많다. 답답해도 환경을 탓하는 건 하루만. 둘째 날부터는 기록을 시작한다. 반복되는 프로세스를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폴더 구조를 정리한다. 파일 네이밍을 아카이브 친화적으로 맞추고, 회의록에 액션 아이템과 마감일을 굵게 표시한다. 자동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엑셀 템플릿, 고정 서두 문장, 자주 쓰는 이미지 컴포넌트 같은 작은 자동화가 시간을 모은다. 이 작은 이익이 야근을 줄인다.

문서 하나라도 대체 가능하게 쓰면 팀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그만큼 내가 중요한 과제에 투입된다. 역설적이지만, 대체 가능한 사람이 대체 불가능해진다. 팀장은 리스크를 싫어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현실 체크리스트

- 출퇴근 혼잡 시간대 2개를 피하는 루틴을 정하고, 예외를 주 1회로 제한한다.
- 월 예산 상한을 4개 카테고리로 나눠, 주간 잔액만 확인한다.
- 주 2회 동료 점심, 주 2회 저비용 식사, 주 1회 혼밥으로 리듬을 고정한다.
- 집중 블록을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 알림을 끄고, 회의 후 10분 요약 메일을 습관화한다.
- 운동은 회사 근처 45분 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 상담은 필요 이상 미루지 않는다.

이직 타이밍을 잡는 4단계

1. 현재 포트폴리오의 빈칸을 구체화한다.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과제를 숫자로 바꿀 계획을 세운다.
2. 내부에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없다면 유사 과제를 제안한다.
3. 3개월 동안 성과를 쌓으며 네트워크를 정리한다. 추천인을 세 명 확보한다.
4. 시장을 리서치하고, 공고 언어를 자신의 문서 언어로 번역해 둔다. 면접 전 시뮬레이션을 두 번 이상 한다.

사례, 32세 마케터의 6개월 실험

A씨는 32세, 역삼의 중견 IT기업 마케터다. 이력은 탄탄했지만, 2025년 상반기 이직을 목표로 하면서 체력과 돈, 포트폴리오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있었다. 월세 95만원 오피스텔에 살고, 점심과 카페에 한 달 35만원을 썼다. 회의는 하루 평균 5개. 문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팀장과의 1대1 미팅에서 “성과는 많은데 설명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그는 첫 달에 출퇴근 루틴을 고쳤다. 8시 10분 지하철, 회사 근처 도착 후 카페에서 20분간 전날 메모 정리.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오후 3시에서 4시 30분 집중 블록 설정. 이걸 팀 슬랙 상태 메시지에 고정했다. 회의 초대장을 4줄 규칙으로 정리했고, 끝나면 10분 요약 메일을 보냈다. 회의는 5개에서 3개로 줄었고, 회의당 시간이 60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됐다.

둘째 달에는 점심 리듬을 만들었다. 월 35만원이던 점심+카페 비용이 26만원으로 내려갔다. 절약한 9만원 중 6만원을 IRP에 추가 납입했다. 그가 체감한 건 돈의 총액이 아니라, 통제감의 회복이었다. 야근은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었다. 체력이 살아나자 저녁 운동 주 3회를 지켰다. 어깨 통증이 줄고, 수면 시간이 5시간대에서 6시간대로 늘었다.

셋째 달부터는 포트폴리오 설계를 손봤다. 운영 위주의 과제에서 성과 지표가 분명한 캠페인 한 건을 라인업에 넣었다. “예산 2천만원, 신규 유입 12퍼센트 증가, 코호트 유지율 3포인트 개선” 같은 문장이 만들어졌다. 결과를 문서 한 장으로 요약해 팀 위키에 올렸고, 회사 전체 채널에도 공유했다. 팀장은 “보고서가 매번 말이 된다”고 평했다.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넷째 달에는 외부 커뮤니티 발표를 잡았다. 20분짜리 케이스 스터디. 발표 준비는 주말 4시간, 평일 2시간이 들었다. 발표 후에는 3통의 메시지가 왔다. 그중 한 곳과 커피챗을 했고, 두 달 뒤 채용 공고가 열렸다. 그는 긴 호흡으로 준비해 둔 자기소개서와 케이스 문서를 바로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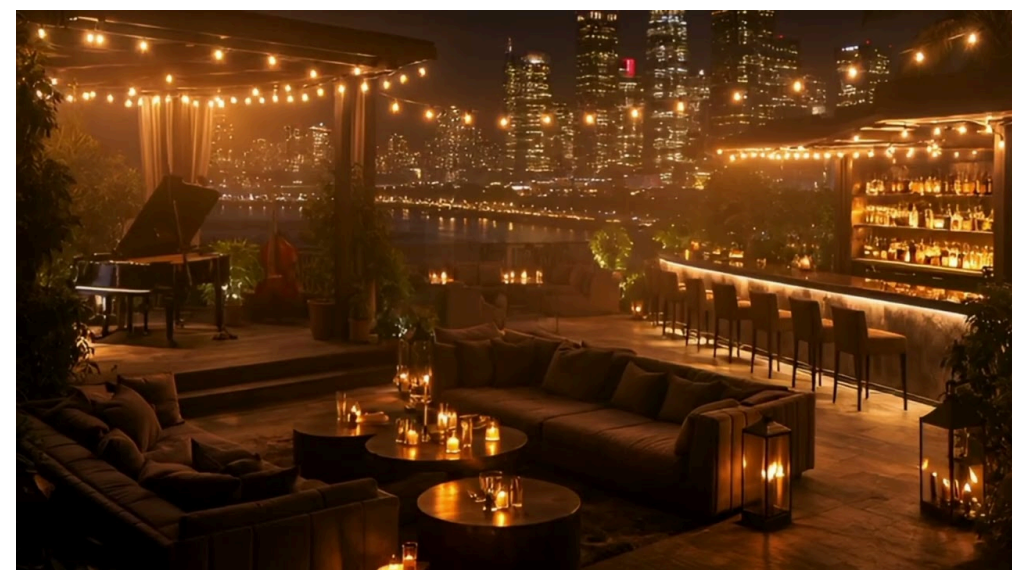
여섯 달이 지나자, 그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 회사의 평가도 좋아졌다. 이직 시장에서도 연락이 늘었다. 강남 점오의 현실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루틴, 기록, 숫자, 동선, 이 네 가지가 누적되면서 서서히 방향이 반대편으로 돈다.

강남을 도구로 쓰는 법

강남은 비싼 동네지만, 무료 혹은 싸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많다.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관광지 같아 보여도 오전 시간에 문서 정리나 리서치에 알맞다. 테이블과 전원 콘센트가 넉넉하고, 소음도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삼성역 인근의 공공도서관은 좌석 예약만 하면 3시간 집중 작업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행사와 밋업은 대부분 저녁 시간에 열린다. 유료라도 2만원 내외가 많고, 발표 자료를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업체 설명회라도 핵심 데이터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경쟁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떤 지표를 강조하는지 힌트를 얻는다.

산책로는 양재천이 독보적이다. 강남의 콘크리트 피로를 씻어내기에 적당하고, 밤에도 비교적 안전하다. 점심 시간 20분 걷기만으로도, 오후의 뇌가 맑아지는 것을 바로 느낀다. 회사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다면, 휴대폰을 두

고 가는 10분 산책을 루틴에 넣어라. 휴대폰이 없는 10분이 의외의 회복을 만든다.



강남 찜오의 시간 감각

강남에서의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러나 24시간의 질은 다르다. 출근 전 30분의 정리 시간, 점심 20분의 걷기, 회의 후 10분의 요약, 저녁 45분의 운동. 이 작은 블록들이 하루를 세운다. 반대로, 지각으로 잃는 15분, 불필요한 회의 30분, 잡담 20분, 야근 1시간은 하루를 무너뜨린다. 시간의 흐름을 휘어잡는 사람만이 강남의 속도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

경계 짓기, 말의 힘

강남 찜오는 거절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무뚝뚝한 거절은 팀을 적으로 돌리고, 무한한 수락은 나를 적으로 만든다. 경계는 말의 형태로 존재한다. “오늘은 1차까지만 함께하고, 내일 오전에 자료 정리해서 공유할게요.”라는 문장은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보호한다. “그 건은 이번 주 내로 제가 맡을 수 있는 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혹시 다음 주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는 팀의 우선순위와 나의 캐파를 동시에 보여준다. 강남의 말은 빠르다. 빠른 말 속에 맥락을 놓는 사람이 길게 간다.

무리하지 않는 성장 곡선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s자에 가깝다. 어떤 달에는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다음 달에는 제자리처럼 보인다. 그때 대부분이 루틴을 버리고 새로움을 찾는다. 반대로 루틴을 지키는 사람이 s자의 다음 곡면을 만난다. 강남 찜오의 생존법은 성장의 속도를 욕망이 아니라 회복력에 맞추는 것에 있다. 회복력이 바닥나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눈앞에서 놓친다.



숫자로 말하는 습관

강남의 평가 시스템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어는 숫자다. 보고서의 동사보다 숫자가 신뢰를 만든다. 클릭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전환이 몇 배 늘었는지,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였는지, 결함률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숫자를 모르는 보고서는 서사로만 남는다. 숫자를 알면 실패도 자산으로 바뀐다. “예상 대비 30퍼센트 낮았으나, 원인은 A와 B였고, 다음 사이클에서 C를 변경해 12퍼센트 개선했다.”라는 문장 하나면, 상대는 질문의 톤을 바꾼다.

강남 점오로서의 자존감

강남 점오는 완성형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다. 반쯤은 외곽에, 반쯤은 중심에 발을 걸친 상태다. 그래서 때로 초라함이 스며든다. 명품 쇼핑백이 흔한 거리에서 배낭을 멘 자신이 작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묘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성과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검소하고, 시간을 아낀다. 그들은 보여주는 것보다 만드는 것을 택하고, 과시보다 축적을 중시한다. 강남을 무대로 쓰되, 강남의 표면에만 매달리지 않는 태도. 그 태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주도한다.

마침표 대신 다음 루틴

강남 점오의 생존법은 비밀병기가 없다. 실행 가능한 작고 확실한 변화가 모여, 돈과 시간과 체력의 총합을 개선한다. 출퇴근 루틴을 고치고, 점심과 커피를 설계하고, 회의와 문서를 정리하고, 운동과 상담을 일상에 놓는다. 포트폴리오의 빈칸을 숫자로 채우고, 네트워킹을 선택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매달 조정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강남이 나를 소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도구가 되어 있다. 강남 점오의 삶은 그 지점에서 비로소 안정된다.